



▶ 이진우 사서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이진우* 총무

11월 6일(토) 부천 중앙공원에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를 위한 부천시 작은도서관 공동행사가 열렸다. 현재 부천시는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되고 도서관 정책과 운영이 지역자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서 이 지역의 실험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특별히 작은도서관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이진우 총무를 만나보았다. ■ 편집자 주

Q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언제 발족되었으며, 발족된 계기는 무엇인지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04년 2월에 발족하였으며, 발족 계기는 2001년에 설립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에서 진행되었던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후 민·관 네트워크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민간 역량의 한 축을 담당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확대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분과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Q 지난 11월 6일(토)에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성과는 어떠셨는지요.

* 재)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사서, ljwib@bcf.or.kr

A 이번 행사는 그동안 부천시에서 진행되었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려 작은도서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책 읽는 문화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최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의 작은도서관(공립문고)과 부천문화재단 동화 기차어린이도서관, 그림책버스 뚜뚜가 함께 주관하여 치루어진 공동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밖으로 나온 도서관'의 컨셉으로 크게 네 마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마당은 '야외도서관'으로 직접 서가를 공원에 세워둠으로써 시민들이 공원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마당은 '주제별 테마 행사'로 도서관의 분류에 따른 '000~900번'까지의 부스를 10개 마련, 각 주제별 추천도서와 이에 관련된 '우리 문화체험' '나무 목걸이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당은 '동화 속 인물 가장행렬 및 책 속 보물찾기 행사'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동화 속 인물로 분장, 중앙공원을 한 바퀴 돌았으며, 책 속 보물찾기는 200개의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 그 속에 담긴 주제별 퀴즈를 풀어보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당은 '동극 공연'으로 고강복지회관의 주부들로 구성된 계수나무 인형극 동아리가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라는 동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그림책버스 뚜뚜'가 원화전시 및 그림책 포스터 전시와 시간대별 슬라이드를 상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작은도서관(공립문고) 사서들이 처음으로 공동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사서가 자기 도서관의 틀을 벗어나 네트워크 사업의 주체로 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며, 사서들과 함께 한 준비기간이 힘들었다기 보다는 무척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되어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500명의 시민들이 가장행렬에 참여하는 등 2,500여명의 많은 부천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을 확실히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최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행사가 처음이신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어떤 방식으로 펼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A 이번 행사와 같은 공동행사는 올해를 계기로 매년 가을에 개최할 계획이며, 더불어 일상적으로는 각 동네에 설립된 작은도서관(공립문고)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interview

interview



◀ 모여라~작은도서관 공동행사 끝나고
공립문고 사서들과 함께

이를 통한 책 읽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캠페인 활동이나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부천시지역은 공립문고와 부천시지역 공공도서관간의 연계 활동이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활동이 중심이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부천시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부천시립도서관과 민간역량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은도서관(공립문고)의 신설이나 예산 작업 등 공적인 활동은 부천시립도서관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역량은 사서와 자원봉사자 공동교육 및 공동행사 개최, 매월 갖는 공립문고 사서회의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네트워크 사업 등 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원하는 자료와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공립문고를 대상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역도서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는 각 공립문고의 관장 및 시의원, 평생학습센터, 부천문화재단,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이러한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재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부천시립도서관과 같이 열린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민간역량과 힘을 합쳐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도서관 사업이만큼 공공도서관이 그 중심

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부천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작은도서관도 직영의 형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지닌 운영주체를 선택하고 도서관 활성화의 바른 방향으로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좀 더 세분해서 여쭙자면, 다른 지역에서도 '작은도서관만들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실제 어린이도서관 등의 작은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계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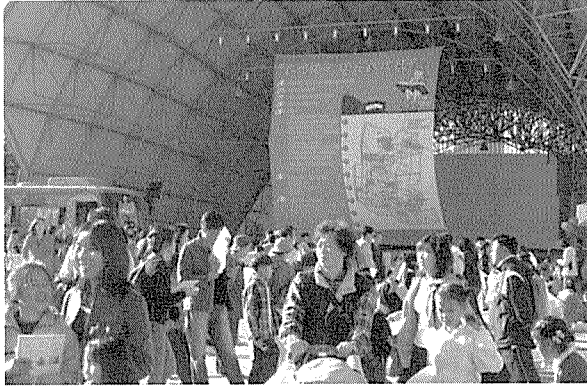
A 지역의 작은도서관 사업이 도서관에 대한 아직도 낮은 의식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기획되고 운영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힘, 지역주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우선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실제 사업을 추동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 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도 지역의 민간역량을 도서관의 주위에 만들어 내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부천과 같은 작은도서관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공감대와 힘은 '도서관친구모임'과 같은 후원회도 만들어 지역에서 도서관을 지켜내고 굳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은 각 동네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서면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내고, 도서관 문화를 생활 속의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도서관의 발전을 가장 더디게 만들어왔던 도서관의 독서실화를 막아내고, 현재와 같은 정보사회에서 각 동네에 만들어진 도서관을 통해 지식격차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이진우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이 제10회 독서문화상 문화관광부장관표창 단체부문에서 수상하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요즘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상황은 어떤지요?

A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은 이제 설립된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용자에 비해 자료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경기도에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면서

interview

interview



◀ 행사에 온 많은 사람들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자료구입비를 지원받아 이용자 대출권수도 가족당 7권으로 하는 등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이지만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내 아이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바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원봉사 동아리와 동화를 공부하는 동아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인형극 순회 공연학습동아리 지원 등 우리 도서관을 넘어선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Q 앞으로도 부천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의 많은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고맙습니다. 